

농어촌공사 의령지사, 13개소 이중화선로 연내 구축

박수상 | 승인 2023.03.07 16:30

국비 40억 투입, 기후위기·자연재해 대비

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는 기후 위기 및 자연재해에 대비해 정곡배수장 등 13개소에 이중화선로를 연내 구축한다고 7일 밝혔다.

지난해 연이은 태풍(힌남노, 무이파, 난마돌)과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분야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등 매년 피해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어 이중화선로 구축을 통해 선제적 대응한다는 계획이다.

이중화선로는 배수장 가동 중 풍해(태풍)로 인해 한전선로 및 변전소 고장 등에 의한 정전사태 발생 시 긴급히 예비선로를 통해 예비전원공급을 받아 배수장을 가동시켜 정전으로 인한 침수 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.

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는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정곡배수장 등 13개소에 국비 40여억 원을 투입해 이중화선로 공사를 연내 마무리 할 예정이다.

의령지사는 여름철 집중호우 및 자연재해에 대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, 의령군과 공조 유지, 피해발생 시 신속 복구 등 재해대응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.

박수상기자

저작권자 © 경남일보 -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박수상